

“한동훈 출마구 무공천” vs “후보 낼 것”... 국힘 또 시끌

(부산 북구갑)

친한·부산 출신 의원들 “단일화 안되면 선거 패배” 지도부 “공당 책무 다해야” 무공천론 단칼에 묵살 조광한 “우월의식 앞세운 소꿉 출마” 韓 작심 비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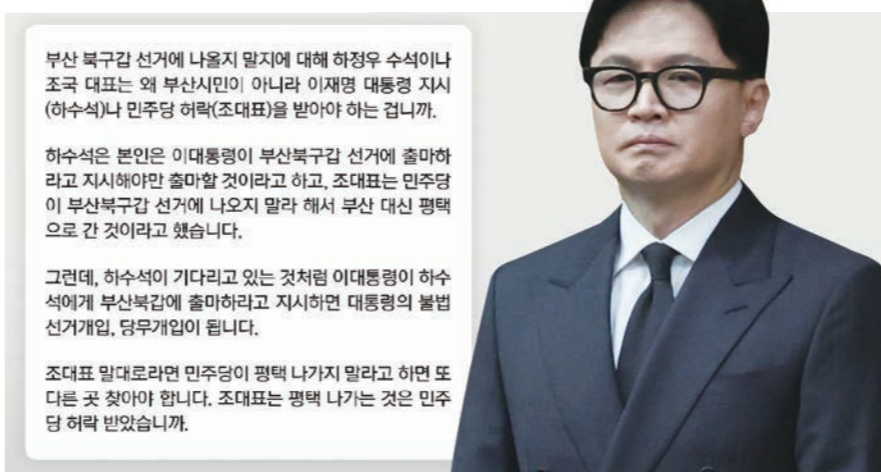
친한(親한동훈)계와 일부 부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당 지도부는 ‘공당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무공천론을 일축하면서다.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복당해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후보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표면화됐다. 당권파인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부산 출마를 놓고 작성한 듯 비판했다.

그는 “일부 강남 부유층들한테 유행하고 있는 게 있다. 원정 출산이다”며 “최근 강남 부유층들 사이에 또 원정 출마가 생겨났다. 그릇된 우월의식”이라고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몇몇 정치인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소꿉 출마를 한다. 그 지저귀는 ‘나는 잘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나는 당선될 수 있다’라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마치 지역구를 본인들이 정복자라도 되듯이 ‘내가 이곳에 출마하는데 이곳 주민들이 고마워해야지, 나한테 표를 주고 당선시키겠지’ 하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무공천 논란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했다. 한동훈 SNS 연합뉴스

“당의 무공천 문제로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무공천에 대한 주장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정당의 개념조차도 없는 말 같지 않은 수준 이하의 주장”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또한 “이런 주장들이 정치의 혐오와 냉소와 불신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우리 당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해당 행위”라

며 “깊은 성찰과 고뇌 그리고 역사에 대한 자기 책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과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무공천을 요청하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알고 있다”면서도 “제1야당으로서 후보는 내는 게 공당으로서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문제는 당대표가 공관위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무공천’ 주장을 반박하며 비판 대열에 합세했다. 그는 이날 SNS에 올린 ‘힘차 출마 마다하지 않았던 박민식 전 장관, 응원은 못할망정’이란 제목의 글에서 “부산 북구의 골목을 누비고 있는 분이 있는 마당에,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공당이 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무공천론을 비판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복합에서 재선을 하며 현 민주당 의원을 꺾기도 했거니와, 국가보훈처를 승격시켜 초대 장관으로 활동했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합치 출마 요청을 기꺼이 수용, 서울 민주당 대선 의원 지역에 출마하는 헌신과 용기를 보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당 소속이 아닌 사람을 위해 공천을 점으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온당한 처사인가”라며 “누가 되더라도, 먼저 우리당 후보를 정

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반면, 후보 공천여부를 둘러싼 당내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이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은 무공천을 건의했고, 광규택 의원은 한 전 대표를 복당시켜 국민의힘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 최고위원의 ‘원정 출마’ 발언을 문제 삼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SNS를 통해 “전북 군산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 갑에서 총선 출마하셨던 분이 남양주로 지역을 옮겨 시장에 출마해 놓고 ‘원정출산’ 운운하니”라며 “그럼 조 최고위원이 2018년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 공천장 받고 남양주시장에 당선된 건 ‘원정출산 성공 사례’라도 되는 거냐”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의 일원답게 사리에 맞는 말씀을 하는 게 온당한 처사인가”라며 “당 지도부의 일원답게 사리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민주 ‘아파트 관리비 절감·행복주택 4년 주거 보장’ 공약

“관리비 집행 투명성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와 ‘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규정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대토약 추진단 산하 ‘착!불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착!불 공약’ 8·9호를 발표했다.

8호 공약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관리비 산정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비교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30~150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울산·세종에만 설치된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고, 공동 주택 우수 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공약 검토를 맡은 안태준 의원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이야말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착!불 공약이 될 것”이라며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비 산정 체계를 확립하고,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호 공약으로 “행복 없는 행복주택 싫어! 행복주택도 최소 4년 주거 보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기준을 일부 초과했다든 이유만으로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행복주택에도 요건 미충족 시 1회 재계약을 허용하는 완충 규정을 도입해,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최소 4년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착!불 공약 프로젝트’ 8·9호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재계약을 허용한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행복주택(10년)만 같은 완충 규정이 없어, 자산기준을 넘으면 즉각 퇴거해야 한다. 일반 임대차도 최소 4년을 보장하는데, 공공임대인 행복주택이 오히려 더 불안정한 셈이다.

행복주택 자산기준이 실거주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확인된다. 2025년 신혼부부 자산기준은 3억3700만 원이다. 보증금 2억3000만 원, 예·적금 5000만 원, 차량 3000만 원이면 총자산은 3억1000만 원으로 기준 안에 있다.

그러나 1년 더 저축해 예·적금이 8000만

원이 되면 총자산은 3억4000만 원으로 늘어나 기준을 300만 원 초과하게 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마련한 보증금과 성실하게 모은 저축이 퇴거 사유가 되는 구조다. 실제로 자산기준을 10만 원 초과해 퇴거 조치된 신혼부부 사례도 있다.

민주당은 입주자 본인이 재계약 심사 전에 자산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LH·SH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정작 입주자는 재계약 심사 전까지 기준 충족 여부

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 자가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예측 불가능한 불시 퇴거 통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착!불 공약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이자 9호 공약 전담 의원인 이소승 의원은 “행복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여야 하는데, 오히려 성실히 저축할수록 퇴거 위험이 커지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행복주택의 즉각 퇴거 구조를 고쳐 청년과 신혼부부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바탕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스카이 만평 김용덕

와 됐다가는 우리까지 화를 당하겠다

나도 미안하다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58세 신예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랍소디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